

<성가대 헌신예배> 인도 : 이영란 권사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도 김태순 권사 •찬 양 전교인 성가대 •성경봉독 창32:24~28(구50p) •설 교 윤성묵 목사 『 변합시다 』 •봉헌기도 진영림 집사 •봉헌찬송 216장 •축 도 윤성묵 목사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도 이경아 집사
•찬 양 전교인 성가대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창32:24~28(구50p)	•특 송 가버나움 목장
•설 교 윤성묵 목사	•성경봉독 요21:1~5(신184p)
『 변합시다 』	•설 교 김지원 목사
•봉헌기도 진영림 집사	『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기적 』
•봉헌찬송 216장	•중보기도회 다같이
•축 도 윤성묵 목사	•축 도 김지원 목사

- 요한복음,사무엘상 - 김지원 목사	
< 정미숙 선교사를 위한 기도 >	
• 태국 치앙마이 하나님의 마음 교회 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 남편 장석현 선교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 아들, 장현성(고1)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 6/8(주일)	성령강림주일, 성가대헌신예배
• 6/15(주일)	교구예배
• 6/22(주일)	온세대예배,목장모임
• 6/28(토)	온가족새벽기도회
• 6/29(주일)	온세대예배,천교의날(2)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뎃동산교회
• 선교단체협력 : WEC, CP
• 해외선교
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돌람 하우스(선교사 쉼터)

고전6:19 요일2:15~17	고전16: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요일2:16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찬 송	찬송가 199장, 559장, 563장 중 택1
설교말씀	“집에 있는 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집에 있는 교회” 즉,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초대교회만의 내용이 아니라,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 세워질 때, 똑같았습니다. 요즘 교계 안팎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가정 교회가 무너졌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뼈아픈 이야기이지만, 지금 회복해야 미래가 열리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볼트만은 “하나님과 별개로 자기 책임하에 살겠다는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아가겠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갈5:16) 따라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집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성령을 간밀하게 쫓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볼트만은 “육체적이건 사색적이건 간에, 보는 것을 도구로 삼아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라 했습니다. 즉,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감 중에, 오직 이 시각만이 빠듯해진 본능의 기관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는 보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안목의 정욕에 예를 들자면, 유튜브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편협된 시각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의 안목,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쏠려 있는 눈을, 말씀으로 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을 향하면,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향하는 부모 세대의 눈이 자녀들에게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명 한명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부모 세대의 입에서 끊임없이 비교의 말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지해도, 용맹함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렘9:23-24)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해석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 메시지를 품고 살아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집에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적 세계관을 길러 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3.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나누세요!	
1.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있어 우선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세요.	
2. ‘집에 있는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세요.	

십 일 조	강영선 곽신열 김금지 김미숙 김태순 서분이 서옥선 오예찬 윤임순 이호윤 전월숙 정찬일 조미숙 최정옥 최정희 최희숙 추경숙 한상무 황윤순
감사헌금	강미애 권태환 김미숙 김선용 김은호 김재영 김태순 끼럼마트 나영희 반영호 서희경 오예찬 윤경민 윤병희 이보영 이선영 이영란 이영선 이윤진 이재흥 이종선 이주안 이주찬 이한주 이호진 정찬일 정창식 정현진 조슈아 조 이 진영림 최정옥 최진숙 최현우 한상무 황성국 황신숙 황점옥
선교헌금	강미애 김의수 박성애 서분이 송정순 이봉엽 정찬일 조미숙 최정옥 추경숙 표영숙
전도헌금	강미애 김의수 박성애 서분이 이봉엽 전월숙 정찬일 조미숙 최정옥 표영숙
장학헌금	강미애 김종분 박성애 오재철 조미숙 추경숙 황화남
구제헌금	강미애 김금지 박성애 조미숙 최희숙 황성국
건축헌금	강미애 강철동 서분이 송정순 전월숙 정찬일 조미숙 최정옥 최희숙 표영숙 그린나래
주일헌금	장년부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20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7-00 연산교회